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개요 및 의미

남 보 우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학입학 전형

대학입학전형이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전형(銓衡)이라는 말은 물건의 양을 잴 때 사용되는 저울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됃됨이나 재능을 시험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은 입학시험, 실기고사, 면접, 서류심사, 지원자격 등 다양한 전형요소 및 시행절차 등을 포함하고, 모집시기, 모집인원, 사정방법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04년 2월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6차 교육과정을 이수하지만, 2005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7차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따라서 변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입학전형은 그 내용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대하여 각 대학이 발표한 사항을 중심으로 전망을 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주요한 영향을 준 7차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목을 교육받는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을 선택교육과정으로 설정하여 자신의 특기, 적성, 흥미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들은 상이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영역이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대학은 모집단위의 전공특성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응시자들이 선택하여 이수한 교과목이나 수학능력시험점수를 반영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공통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10개 교과로 구성되며,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에서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선택과목에는 일반선택과목 26 교과, 심화선택과목 53 교과를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 물론 학생들이 모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

“

대학입학전형의 체제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선택적 교육과정을 지향하므로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려는 노력은 불가피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들은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첫 입학전형에서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2002 및 2003학년도 입학 전형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7차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청이나 학교에서 지정한 교과를 이수하고 나머지 68 단위 정도에서 학생들이 선택하여 교과를 이수하게 된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접적인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의 선택교과이며, 각 평가영역도 선택할 수 있고, 수리영역과 탐구영역에서는 교과를 선택하여 응시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학능력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영역을 전형요소로 활용한다. 물론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도 반영한다.

학제 금지 및 고등학교 등급화 불가 등도 현행 대학입학전형 체제와 동일하다. 수시모집에서 대학은 학생의 특기, 적성, 여건을 고려한 특별전형 등의 모집비중을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수능성적이 수시2학기 모집에는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되는 측면에서 현행과 동일하다.

현행과 동일한 대학입학전형 체제하에서 수시1학기 모집을 시행하는 대학은 75개교로 2003학년도 보다 9개교가 증가하고, 수시2학기 모집 대학은 167개교로 2003학년도보다 1개교가 증가하고, 정시 모집대학은 192개교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Ⅱ. 현행과 동일한 대학입학전형 체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체제는 현행과 동일하다. 수시1학기, 수시2학기 및 정시모집에 걸쳐 대학입학전형이 실시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실시된다. 전형유형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뉘어지고, 논술 이외의 필답고사 금지, 기여입

Ⅲ. 7차 교육과정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형자료 반영

대학입학전형의 체제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주요 전형자료 활용 대학의 비율은 <표 1>과 같이 요약된다.

수시 1학기에는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

〈표 1〉 주요 전형자료 활용 대학의 비율

(단위 : %)

모집 시기	수학능력 시험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 (면접, 논술 등)	추천서/ 자기 소개서 등	기타 자료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수시1학기	-	96	75	72	40	36
수시2학기	46	99	74	77	44	47
정시	98	99	80	79	20	16

시 2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의 46%인 77개 대학이 수능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며, 정시모집에서는 98% 대학이 수능성적을 활용한다.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것도 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모든 모집시기에 있어서 전형요소로 활용되며, 95% 이상의 대학이 각 모집시기에서 교과성적을 전형요소로 반영함으로써 7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각 모집시기에서 70% 이상의 대학이 특별활동, 봉사활동, 출결사항, 창의적 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반영함으로써 7차 교육과정이 원만히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면접, 논술 등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여 반영하는 대학의 비율도 70% 이상이며,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성적 이외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기 위한 현행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7차 교육과정은 선택적 교육과정을 지향하므로 현행보다 복잡하게 되며,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려는 노력은 불가피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들은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첫 입학전형에서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2002 및 2003학년도 입학전형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7차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목 균형적 반영

이상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험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들은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대학의 특정전공에서 수학하는 데 적합한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학입학을 준비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어 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어떠한 교과목을 전형요소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의 비율을 보면, 국어 95~98%, 영어 92~95%,

“

이상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험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들은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대학의 특정전공에서 수학하는 데 적합한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학입학을 준비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어 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어떠한 교과목을 전형요소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

수학 89~92%, 사회/국사 87~90%, 과학 82~87% 등으로 높고, 도덕, 기술·가정,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과목도 50~70% 수준의 반영률을 보인다.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의 선택교육과정 중 반영 현황을 과목별로 보면, 인문·사회 과목군에서 국어는 91~95%, 사회는 87~89%, 도덕은 54~61%의 대학이, 과학·기술 과목군에서 수학은 89~90%, 과학은 83~86%, 기술·가정은 49~60%의 대학이, 예·체능 과목군에서 미술은 45~53%, 음악은 39~48%, 체육은 41~51%의 대학이, 외국어 과목군에서 영어는 84~89%, 제2외국어는 4~51%의 대학이, 교양 과목군에서 한문은 34~45%, 교양은 25~32%, 교련은 24~32%의 대학이 이를 각각 반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목 성적 반영 경향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이든 선택교과이든 간에 과목별 반영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교과목의 과목이 다양하게 그리고 비교적 균형적인 비율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에서 의문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 교과목의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과목 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정상적인 교과 운영으로 7차 교육과정이 안정 궤도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과의 교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보면 전 과목 반영 대학과 일부 과목 반영 대학이 모집시기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택교과의 경우 학생이 이수한 전 과목 반영 대학보다 일부 과목 반영 대학이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적성과 흥미가 있는 과목 중심으로 선택하여 집중 학습하게 되고, 학업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V. 대입수학능력시험 복수영역 선택 반영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5학년도 수능은 고등학교 2~3학년 교육과정을 직접 출제의 범위로 하고 있으며, 탐구영역인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수능보다는 범위가 적다. 수시2학기

〈표 2〉 정시모집에서의 수능영역별 반영 대학의 비율

(단위 : %)

계열	언어	외국어 (영어)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제2 외국어, 한문
			가	나	가/나	사회	과학	직업	사회/ 과학	과학/ 직업	사회/ 직업	사회/과 학/직업	
인문사회	96	98	0	9	51	19	1	0	14	1	5	63	20
자연과학	60	98	24	2	79	1	27	0	16	6	1	60	6
공 학	56	94	19	1	81	1	18	0	7	7	0	60	5
예 체 능	97	91	0	4	41	10	2	0	14	0	3	63	9
의 학	70	100	55	2	49	0	57	0	17	4	0	19	2
기 타	100	92	8	0	77	0	8	4	15	0	4	73	0
전 체	96	97	21	9	80	17	23	1	19	6	4	67	19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으로만 수능성적을 반영하지만 정시모집에서는 대학들은 학생선발에 수능 시험 성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005학년도 수능반영 영역 수는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의 비율이 12.6%, 3개 영역 37.0%, 4개 영역 44.1% 등으로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다. 수능 성적의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의 비율이 44.1%로 높아 수험생이 공부를 해야 할 범위가 넓으나, 탐구영역 중 1개의 영역만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선택교과만을 범위로 하기 때문에 2003학년도보다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이유는 언어, 외국어, 수학 등의 기본적인 실력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입학을 위하여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탐구영역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능 반영계획을 영역별로 보면, 언어는 전체의 96%인 185개교가, 외국어(영어)는 97%인 186

개교가 이를 반영한다. 수리 영역 중 '가' 형은 21%인 41개교, '나' 형은 9%인 17개교, 가형 또는 나형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가/나' 형은 80%인 155개교가 각각 이를 반영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사회'는 17%인 34개교, '과학'은 23%인 46개교, '직업'은 1%인 1개교, '사회/과학'은 19%인 38개교, '과학/직업'은 6%인 11개교, '사회/직업'은 4%인 8개교, '사회/과학/직업'은 67%인 132개교가 각각 이를 반영하고,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 반영 대학은 19%인 37개교에 달한다.

많은 대학들이 수리영역 및 탐구영역에서 복수영역 또는 복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험생들에게 지원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대학이 우수한 입학생을 유치하기가 용이하게 한 결과로 해석된다.

Ⅵ. 학문계열별 수능 영역 선택

언어 영역 반영 대학을 모집단위 계열별로 보

“

2005학년도 대입전형이 발표되자 이것을 변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2005학년도 대입전형 발표는 대입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앞을 내다보고 미리 큰 틀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면, 인문사회 96%, 예체능 97% 등으로 매우 높지만, 의학 70%, 공학은 56%, 자연과학 60%로 낮아 계열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외국어(영어) 영역 반영 대학은 의학 100%를 비롯하여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98%, 공학 94%로 모든 계열이 90%를 상회하여 계열 간 편차도 적으면서 외국어를 반영하려는 대학이 매우 많다.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인문사회계열에서는 20%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계열에서는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모집계열에 따라 수험능력시험의 반영영역이 달라지고 있어, 수험생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반영하는 영역을 선택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2005학년도 수능은 수리영역분야에서 가형 또는 나형을 선택하도록 하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리탐구 영역의 가형을 선택할 경우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 사회탐구 영역 또는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4 과목 이내에서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하고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3 과목 이내에서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05학년도 수능반영의 변화는 주로 수리

영역과 탐구영역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리영역 반영 대학을 모집단위 계열별로 보면, 가형을 요구하는 대학이 의학분야에서 55%로 높고 자연과학 24%, 공학 19%이며, 인문사회와 예체능은 한 곳도 없다. 가형 또는 나형을 요구하는 대학은 공학 81%, 자연과학 79% 등이 높고, 의학은 49%, 예체능은 41%로 낮고 편차도 큰 편이다.

탐구영역에서는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을 개별 요소로 하여 다양한 조합의 선택이 가능하다. 사회, 과학, 직업 등 개별 영역을 요구하기보다는 사회 또는 과학 또는 직업 탐구영역을 어느 것이든지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과학/직업을 요구하는 대학이 인문사회와 예체능이 63%로 가장 높고 의학이 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만 과학 탐구 영역에서는 계열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의학이 57%로 높고 자연과학은 27%, 공학은 18%인 반면, 인문사회는 1%, 예체능은 2%로 매우 낮고, 계열 간 편차도 크다.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 과목 선택 또는 지정 반영 대학을 보면, 거의 편차 없이 90%인 173개 대학이 정치, 사회문화, 윤리 과목을, 89%인 172개 교가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경제 과목을 각각

반영한다. 과학탐구 영역 과목 선택 또는 지정 반영 대학을 보면, 88%인 170개교가 물리I, 물리II를, 88%인 169개교가 화학I, 생물I, 화학II, 생물II를, 87%인 167개교가 지구과학I을, 86%인 166개교가 지구과학II를 각각 거의 편차 없이 골고루 반영한다.

직업탐구 영역 과목 선택 또는 지정 반영 대학을 보면, 69%인 134개교가 정보기술기초, 컴퓨터일반, 수산해운정보처리, 프로그래밍을, 68%인 132~133개교가 농업정보관리, 공업입문,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원리, 해양일반, 수산일반, 해사일반, 인간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일반을, 67%인 131개교가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을 각각 거의 편차 없이 골고루 반영한다.

탐구영역 과목 선택에서 전반적으로 교과 영역 내 과목 간 선호도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학들이 특정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전체 과목에서 어떤 것이나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한 수의 과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VII. 맺는 말

2005학년도 대입전형이 발표되자 이것을 변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2005학년도 대입전형 발표는 대입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앞을 내다보고 미리 큰 틀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2005학년도 학생부 및 수능 반영계획을 요약하면, 현재에 비하여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다양한 전형요소를 포함하면서도,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

는 기본적인 학력을 증시하고 있다. 따라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수용하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실행상에 다소 간의 문제점을 내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대학입학전형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몇년 간 대학입학전형이 시행된다면 7차 교육과정이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5학년도에는 대학의 입학전형요소 반영방법이 더욱 다양화된다. 선택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화 및 복잡성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생에게 대학입학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공신력 있는 대학입학정보를 구하기가 어렵고, 사설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대입정보의 지역편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완화라는 차원에서 대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대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

남보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렌셀러대학교 객원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오리알 사람들』, 『21세기를 위한 경영학 이해』, 『수능시험집단간 실력차이 보정방법에 관한 연구』 외 다수가 있다.